

01 교회소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창단 27주년을 맞아 특주로 영광 돌린 닛시오케스트라와 권능의 무안단을 19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 소식.

02 생명의 말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사랑을 이루려면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모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03 기획특집

오히려 승진의 축복으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말씀대로 선을 좇아 행하니 승진의 축복이 임한 김득섭 집사의 간증.

04 간증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파킨슨병으로 인한 머리와 손의 떨림 증세를 치료받은 김순자 집사와 러시아에서도 은혜로 충만한 만민의 가족 빅토르 성도의 간증.

# 만민뉴스

제880호 2019년 3월 17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를 위해 연주하다!”

### 세계 유일 찬양 전문 닛시오케스트라 창단 27주년 맞아

지난 3월 3일 주일 저녁예배 시, 창단 27주년을 맞은 닛시오케스트라가 특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 각종 교계연합행사 등 복음 전파와 기독교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닛시오케스트라는 시편 150편 3~5절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하신 말씀에 따라 창조주 하나님께 각종 악기로 영광 돌리고자 1992년 3월 1일 창단됐다.

이후 1992년 세계성령화대성회,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 평화통일 희년대회 등 각종 교계연합행사를 비롯하여 국가 연례조찬기도회, 한-러 친선 음악회, 2002 월드컵 공동유치 한일축구 친선대회 개막연주 등 국가적 차원의 연주, 사회문화 단체의 자선음악회, 해피콘서트 등 100여회가 넘는 연주를 통해 복음 전파와 기독교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세계적인 부흥강사 이재록 목사가 인도한 일본 나고야, 필리핀, 러시아 연합대성회 시 선교 사역에도 함께했다.

#### 영감어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치료와 축복의 역사 넘쳐

닛시오케스트라는 각종 예배 시 성가



대의 찬양과 함께 영감어린 연주로 큰 은혜와 감동을 더해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금관앙상블, 미라클, 바이올린 듀오, 대부분 닛시오케스트라 2세들로 구성된 미라클주니어가 특송으로 영광 돌리고 있다.

한편,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 더욱 충성하는 단원들이 있다. 송영현 장로(클라리



넷)는 이하선종양을, 이민경 집사(타악기)는 자궁과 난소에 있던 흑과 임신 중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을, 안미영 권사(바이올린)는 석회성 건염을, 이정아 권사(비올라)는 딸의 화농성 고관절 농양을, 김은정 권사(호른)는 발가락 골절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깨끗이 치료받았다.

## 권능의 무안단물 19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

지난 3월 7일 오전 11시, 전남 무안군 해제면 무안만민교회에서 권능의 무안단물 19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이 있었다. 호남지방회 서기 김명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중부지방회 회장 길태식 목사의 기도, 김진희 권사의 특송에 이어 만민중앙교회 교역자회 부회장 이미영 목사의 말씀 증거가 있었다.

강사 이미영 목사는 설교에 앞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축하 메시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이시며 성경의 사건들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는 무안단물을 통해 주셨던 처음의 감격과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날마다 더 천국을 소망하며 힘차게 달려가기 바란다”고 전한 뒤, ‘기회’(고후 6: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 “무안단물, 성경이 사실임을 확증하는 표적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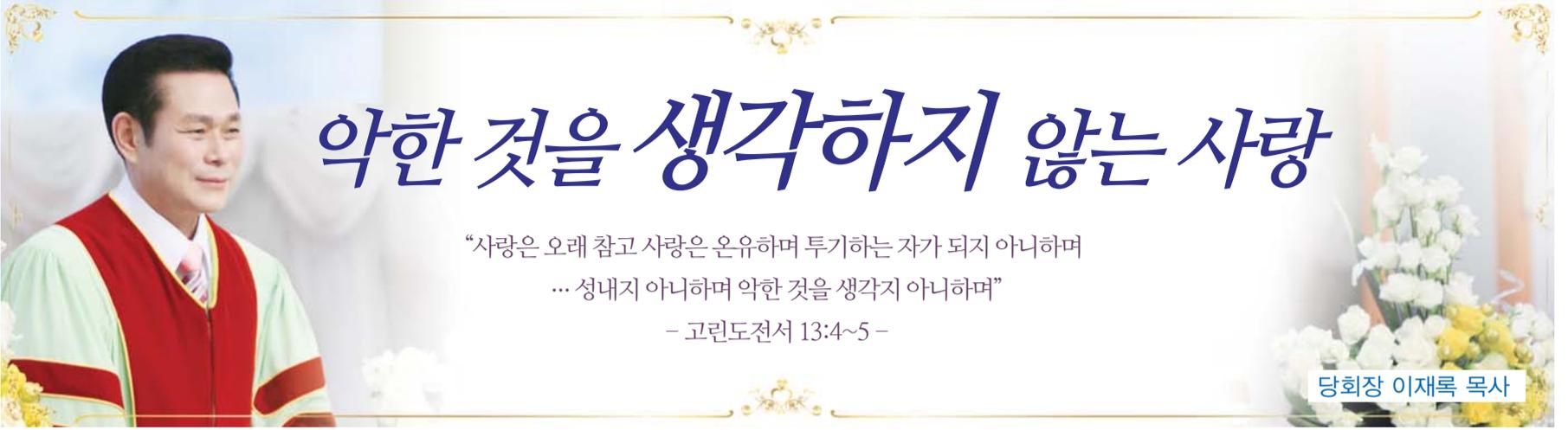


출애굽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사건이 기록돼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생활용수 부족으로 고통 받던 무안만민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2000년 3월 5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시공 초월한 기도로 바닷가의 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활용할 때 각종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들이 해결되지요.

행사를 앞두고 전라남도 도청에서는 3일 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좋은 날씨를 위해 당회장님께 기도를 부탁드렸지요. 과연 3월 7일 오전 8시 무안을 포함해 전남 서부권 지역 12개 시, 군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돼 청명한 하늘 아래 행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김명술 목사

(무안만민교회 담임)



#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 고린도전서 13:4~5 -

당회장 이재록 목사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떠 올리기만 해도 감동이 과도처럼 밀려오고 눈물이 흐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며 고민하는 분들도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는 얼마나 '죄와 악을 버리고 변화되고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마음에서 악을 버려 나가는 만큼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악한 것이란 '하나님 말씀에 비춰 볼 때 하나님 뜻이 아닌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 1.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한 생각들

### 1)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생각

예를 들어 누군가와 말다툼을 했는데, 상대가 미운 나머지 '가다가 꼭 걸려 넘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사이가 나빴던 이웃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은근히 '잘됐다', '참 고소하다', '그럴 줄 알았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시험을 못 봤으면' 하고 내심 바라기도 합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이처럼 악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원하지요. 사랑이 없기에 잘못되기를 바라고 상대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상대의 허물이나 약점을 알리려 하고 그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만일 자신이 속한 단체나 모임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귀가 솔깃해진다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상대가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막고 도움의 손

길을 내밀기 위해 알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귀가 솔깃해진다면 대개 험담하고 수군수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 주려고 합니다(잠 17:9).

마음에 영적인 사랑이 있으면 남이 잘될 때에 시기, 질투하지도 않으며 상대가 잘되고 사랑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 하였고,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 2)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

만일 누군가 크리스천으로서 가서는 안 될 곳에 들어가는 것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마음에 악이 있는 만큼 '어떻게 저될 수 있지?' 하고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좀 더 선하면 의아해하다가 '뭔가 사정이 있겠지' 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바꾸려 하지요. 그러나 영적인 사랑이 있으면 악한 생각 자체가 들지 않습니다.

설령 상대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전해 듣는다 해도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선불리 판단, 정죄하지 않지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해 나쁜 말을 전해 들으면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며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을 전한 사람을 되레 나쁘다고 생각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찌하든 좋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고 험뜯고 비방합니다. 사적인 관계에서뿐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판단, 정죄하지요. 심지어 상대의 형편이나 처지, 전후 사정을 살피려 하지도 않은 채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인터넷에 유포된 루머는 악성 댓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현실이지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

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웃을 판단하는 것은 악이라 하지요.

상대가 명백히 잘못된 경우라도 영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상대가 옳다, 그르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에게 유익한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요. 어찌하든 그 영혼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온전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뿐 아니라 상대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진리를 알려 주고 변화되도록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루면 상대를 선하게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사랑하기에 어찌하든 믿어주고 도움을 주기 원하지요. 이처럼 판단, 정죄하는 생각 자체가 없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 3)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모든 생각

단순히 상대방에 대해 악한 생각을 품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것은 무엇이나 악한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을 선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덕이나 양심은 선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던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의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은 다 악이며 죄이기 때문입니다(요일 3:4).

그러면 죄와 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크게 보면 죄와 악은 모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비진리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반대인 어둠이지요. 좀 더 가까이서 바라본다면 죄와 악은 분명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교회 오시는 길**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시예배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가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가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나무에 비유한다면, '악'은 보이지 않는 땅속의 뿌리와 같습니다. '죄'는 눈에 보이는 줄기와 잎, 열매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의 줄기와 잎, 열매가 있을 수 없듯이 죄는 악에서 나오는 산물입니다. 즉 악은 땅속 깊숙이 자리 잡은 뿌리와 같이 하나님의 선, 사랑, 진리와 반대되는 마음 안의 '속성'이지요. 이 악이 구체적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욕을 하거나 가시 돋친 말과 폭력을 행사했다면, 마음에 있는 미움이라는 악이 구체적인 행함, 곧 죄로 나온 것입니다(눅 6:45). 죄는 하나님 말씀, 곧 '계명'이라는 기준에 의해 성립되고 구체화됩니다. 미움, 시기, 질투, 간음 등 육신의 일과 다툼, 헐기, 도적질, 살인 등 육체의 일로 조목조목 분류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교양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다면 마음에 악이 있어도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경우 크게 죄를 짓지 않으니 자칭 '나는 성결을 이루었다' 하고 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본성 속의 악까지 다 버려야 성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본성에는 부모의 기를 통해 물려 받은 악이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다가 극한 상황에 부딪히면 드러나게 됩니다. 설령 죄를 짓지 않는다 해도 흠과 티도 없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할 때 온전하지 않은 것이 다 악의 모양이지요.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22)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간단하게 압축하면 바로 '사랑'이지요(요일 3:23 ; 롬 13:10). 결국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이며 죄입니다. 내가 얼마큼 영적인 사랑을 이뤘는지 알려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만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을 이루려면**

**1) 악한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설령 악한 것을 보거나 들어도 떠올리거나 되새기려 하지 말고 기억하지 않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생각이 마음먹은 대로 통제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하면 더 집요하게 떠오를 때도 있지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시지요. 악한 것을 일부러 보고 들으며 떠올리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하며, 순간적으로 스치면 악한 생각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2) 악한 일에 결코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이서 10~11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했습니다. 철저히 악을 경계하고 용납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이지요.

사람은 타고난 죄의 성질과 성장하면서 보고 들은 비진리를 바탕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 이러한 죄성과 비진리를 버려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죄성과 비진리를 버리는 데에는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진리보다 비진리가 더 익숙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만 버리기는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흰옷에 검은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려도 쉽게 스며들고 번지는 것처럼 매우 작아 보이는 악도 큰 악으로 발전하기가 쉽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퍼져 나갑니다(갈 5:9). 따라서 작은 악이라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하지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기 원한다면 무조건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시 97:10 ; 잠 8:13).

만일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가 좋아하는 것은 좋아지고 싫어하는 것은 싫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으면 성령이 탄식하시니 곤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아 죄를 짓지 않고자 노력하게 되지요. 이렇게 악을 미워하여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나갈 뿐 아니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3.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공급해 주어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한 대로 악을 심으면 재앙을 거둘 뿐입니다(잠 22:8).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질병이 오거나 사고를 겪는 일, 가난과 가정불화로 근심 속에 살아가는 등 이런저런 문제들도 결국 자신이 심은 악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물론 재앙이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쌓은 악이 일정 수준에 다다랐을 때 그 자손에게 임하기도 하지요.

많은 사람이 이런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크든 작든 악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잠 20:22) 하며 언제라도 선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에 따라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지요(출 20:6). 우리가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을 미워하면서 자신의 영혼에 두 가지를 항상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악한 생각을 물리치고 선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얻을 수 있지요. 또한 기도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곰씹어볼 때 미처 깨닫지 못하던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실 속의 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불같이 기도할 때에 마음의 악을 버릴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모든 악한 것은 보지도, 듣지도 않으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불같은 기도로 신속히 악을 버려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니  
총지배인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김득섭 집사 (51세, 3대대 23교구)

저는 1995년부터 24년 동안 회사(골프 관련 서서 울컨트리클럽) 총무부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그동안 본사도 튼튼하고 영업도 항상 흑자를 내서 아무 걱정 없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25일, 갑자기 회사가 매각됐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당일 임원 5명에게 사직서가 징구됨과 동시에 곧바로 인수팀이 회사를 점령했습니다. 점차 과장급까지 교체될 것이라는 소문 등으로 그동안 평안했던 회사가 갑자기 혼돈에 빠져 버렸습니다.

저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연단 뒤에 있을

큰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인천 본사에서 제가 희망하면 본사에 복귀시키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23교구 총무구역장의 사명도 있고, 함께했던 회사 직원들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 그냥 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며칠 후 본사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저희 회사를 인수한 그룹에서 저를 총책임자급인 총지배인으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는 본래 위로 임원들이 적체되어 단시간에 오를 수 없는 자리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2013년 1월, 교회 등록 후 10년 된 비염과 5년 된 어깨 통증, 턱 현상을 치료받았습니다. 또한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며, 변함없이 각종 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드리고 주어진 모든 사명에 사모함으로 충성하기를 힘써왔지요. 이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함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 눈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행할 때마다 응답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파킨슨병으로 인한 머리와 손의 떨림 증세가 사라졌어요!”

김순자 집사 (74세, 2대대 10교구)



믿음과 기도로 도와준 두 딸과 함께한 김순자 집사

저는 10년쯤 전부터 파킨슨병으로 인해 머리와 왼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쉴 새 없이 머리가 흔들거렸고, 손이 덜덜거리려 컵 하나 들기도 어려웠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치료되지 않았고 단지 약화를 막을 뿐이었지요.

만민중앙교회에 다니는 두 딸은 “엄마, 언제 교회에 나오실 거예요?” 하며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는 것이 너무 민망해 선뜻 교회에 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날, 착한 딸들의 소원이니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후 교회에 등록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치료받은 성도들의 간증을 듣다 보니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지요. 신기하게도 만민기도원 환자 집회를 참석해 지난날을 회개하며 은혜를 받을 때마

다 머리와 손의 떨림 증세가 호전되는 것이 느껴져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저는 주일예배와 금요철야예배가 있는 날이면 일찌감치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앉아 성경을 읽거나 주보, 만민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황정숙 지역장님이 와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시고, 이달천 교구장님도 오셔서 따뜻하게 손잡아 주며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시니 주 안에서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고 힘이 되었습니다. 예배 후 집에 오면 당회장님의 ‘십자가의 도’ 설교 테이프를 듣고 환자기도를 정성껏 받곤 하였지요.

그러던 중, 2019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철야예배 시

은사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치료를 받기 위해 기도하였고, 두 딸(배윤영, 배문영 집사)도 저의 치료를 위해 기도로 도와주었지요.

이윽고 1월 25일, 금요철야예배 2부 은사집회가 열렸습니다. 권능의 손수건으로 이수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한 뒤 머리를 흔드는 증세가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2월 22일 은사집회 시에 또다시 성령의 불이 임해 손이 떨리는 증상까지 사라졌지요. 이후 몸이 가벼워졌고 약을 먹지 않는 데도 머리와 손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세상 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한 저의 질병을 하나님 권능으로 치료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살아 있는 교회를 만나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빅토르 첼취가쉐프 성도 (47세, 러시아 남시베리아 하카시아 공화국)



주님의 좋은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는 빅토르 성도(가운데) 가족

재록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열심히 인터넷을 검색해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를 찾고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궁금궁금이 아주 명쾌하게 해결됐습니다.

특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사랑장’에 은혜를 받았고, 자신의 의와 틀을 깨뜨려야 한다는 말씀에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도 깨우쳤습니다. 마음에 확신을 얻고 저는 2016년 4월에 등록하였고, 이후 아내와 자녀들도 등록해 금요철야예배와 주일예배를 인터넷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건축 일을 하면서 손가락이 항상 붓고 손톱 주변도 굵아 있었으며, 다리에도 건선이 있어서 여러 방법으로 치료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을 듣고는 더 이상 약을 의지하지 않

고 믿음으로 치료받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예배 때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고 손가락과 손톱이 정상 이 되고, 다리의 건선도 치료받았지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니 꼭 만민중앙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고 싶었습니다. 2017년 가을, 저는 한국을 방문해 세례를 받고 한 달간 만민중앙교회 예배와 모임,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었지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던지 아직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현재 성경 말씀을 더욱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MIS(만민국제신학교)에서 제 아들과 함께 수강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주님의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 열심히 성결의 복음으로 무장하며 저희 하카시아 지역에 지 교회가 생겨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당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범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동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3478-9668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447-9217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왕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평덕신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3430-331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산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352-8336